
저작권 보호 제도 선진 사례 조사를 위한
국외 출장 결과 보고

2018. 12.



한국저작권보호원
KOREA COPYRIGHT PROTECTION AGENCY

목 차

1. 출장 개요	1
2. 세부 내용	3
① 영국지식재산권청 (IPO)	3
② 영국지식재산전담부 (PIPCU)	6
③ 국제음반산업협회 (IFPI)	9
④ 국회 및 인터넷 컨퍼런스 (Parliament and Internet Conference 2018)	14
⑤ 영국음악산업협회 (BPI)	16
⑥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 (ISPA UK)	19
⑦ 지식재산권 동맹 (Alli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22

I. 출장 개요

□ 출장목적

-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적극적 제재를 하려는 EU 정책 기조에 따른 영국 정부와 산업계의 동향 및 관련 추진사업 등의 조사를 통해 저작권 보호정책의 시사점 도출

* EU저작권단일화지침(DSM): OSP에게 저작권 침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의무 부여

- 정품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위한 '저작권OK' 지정사업 활성화 방안 및 해당국 내 보호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 모색

□ 기간/장소

- 2018. 11. 18(일) ~ 11. 23(금) (4박 6일)/ 영국(런던)

□ 출 장 자

- 조사연구팀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전략기획팀 이용일 선임

□ 주요 활동

- 영국 내 저작권 유관기관 방문
 - 영국지식재산권청(IPO), 지식재산범죄전담부(PIPCU),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영국음악산업협회(BPI),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 UK), 지식재산권 동맹(Alliance for IP)
- '국회 및 인터넷 컨퍼런스(Parliament and Internet Conference 2018)' 참석

□ 출장일정

일자	지역	시간	장소	내용
11.18(일)	인천	12:55-16:30 (현지시간)	○ 인천출발 ○ 영국(런던) 도착	인천 → 런던
11.19(월)	런던	11:00-13:00	○ 영국지식재산권청(IPO)	영국의 저작권 강화 전략 및 최신 정책·법안 동향 조사
		15:00-17:00	○ 지식재산범죄전담부(PIPCU)	저작권 관련 범죄 통계 및 행태 변화 조사

일자	지역	시간	장소	내용
11.20(화)	런던	11:00-13:00	○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국제 음반 산업 관련 동향·성과 및 'Fixing the value gap' 캠페인 활동 등 조사
		14:00-17:00	○ 국회 및 인터넷 컨퍼런스 2018 (Parliament and Internet Conference/2018)	영국의 AI 정책·전략 방향 조사
11.21(수)	런던	10:00-12:00	○ 영국음악산업협회(BPI)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활성화 방안 및 영국 음악 산업 동향,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조사
		14:00-16:00	○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 UK)	영국의 불법사이트 관련 정책 (광고차단 협조 등) 등 자율 규제 관련 활동조사
11.22(목) ~11.23(금)	런던	11:00-14:00	○ 지식재산권 동맹 (Alli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자 협력 및 활동, 성과 등 조사
		18:50-14:50	○ 영국(런던) 출발 ○ 인천 도착	항공권 : 런던 → 인천

II. 세부 내용

① 영국 지식재산권청(Intellectual Property Office)

1. 개요

- 일 시 : 2018. 11. 19.(월) 11:00 ~ 13:00
- 회의장소 : 지식재산권청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Ros Lynch(Director, Copyright & IP Enforcement)
 - Dylan Foulcher(Head of Digital Technologies)
 - (영상) Elisabeth Jones(Director, International Copyright Enforcement)
 - (보호원)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영국의 저작권 강화 전략 및 최신 정책·법안 동향 조사

◆ 기관명 :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 기관개요

- 1852년 설립된 최초의 특허권 관리기구, 이후 2007년 4월 영국의 지적재산권 기구로 출범

○ 주요 역할

- 특허, 디자인, 상표, 저작권 등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전반에 대한 이슈 및 홍보, 교육, 법률적인 사항 등의 관리를 수행, 저작권 조정 및 Copyright Tribunal을 통한 분쟁 해결

○ 주소: (London) 4 Abbey Orchard Street, London, SW1P 2HT

○ 사이트: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intellectual-property-office>



<기념사진>

2. 주요내용

- 저작권 인식 개선을 통한 침해 감소 및 예방 활동 진행
 - 시민들의 저작권 의식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령별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하고 이를 설문조사를 통해 검증·연구하는 시작단계에 있음
 - 현재까지 '자가체크 설문조사'를 통해 위법행위 경험을 물었다면, 앞으로는 이용행태에 초점을 맞춰 소비자 인식변화 확인 조사 예정(※연차보고서 개선 방향과 동일)
- 시민들이 불법사이트를 접속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불법사이트 입을 알리는 레터(letter)'를 발송하여 교육효과 기대
 - 레터는 ISP들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에 의해 자동 발송되며, 발송비용은 콘텐츠사업자들이 부담
 - 레터 내용에는 불법사이트 이용으로 인해 법적 제재가 있을 수 있음을 경고하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 제공
- 영국에서의 접속차단(site blocking)은 EU 법규에 따르며, 고등법원(High Court) 판결 이후 ISP에 의해 신속하게 차단됨
 - EU에서 침해사이트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하며, URL이나 DNS 서버 변경하는 경우는 많지 않음
 - 2011년 첫 판결 이후 150여개 사이트가 접속차단 됐으며, 재판 비용이 100만 파운드(약 14억)로 침해가 심각한 경우에만 소송 진행
- IPO가 꼽은 저작권 당면과제는 「EU 단일화 지침」으로, 각기 다른 당사자 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통합하는 작업을 수행 중
 - 「EU 단일화 지침」은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등장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것으로 그 내용과 범위가 매우 넓음
 - 영국은 큰 틀에서 EU지침과 방향은 같으나, 영국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논의 중에 있음

■ EU 단일화 지침 주요 이슈

- 가치차이(Value Gap) 해소
 - 온라인플랫폼에서의 콘텐츠 가치와 콘텐츠를 창작한 저작자·기업의 수익 간에 존재하는 현저한 불균형을 말함, 구체적으로 스포티파이(Spotify)와 유튜브(Youtube)에서 제공하는 음악 저작권료의 차이로 비교해볼 수 있음
- 뉴스 저작권 링크세(Link tax) 도입
 - 뉴스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 노출되면 오리지널 사이트(뉴스사이트)를 방문하지 않아 광고 수입이 줄어들어 따라,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뉴스 링크 시 일정액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함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대중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해 ISP의 참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협력을 통해 저작권 침해로 접속 차단된 불법사이트 접속자에게 교육목적의 경고와 저작권OK를 안내하는 방안 추진 필요
 - 대부분의 저작권 침해사이트가 도박, 음란물 등의 광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관련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ISP의 참여·협력 필요
- 올해 9월 통과한 EU 단일화 지침은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제시한 지침(안)으로 현재까지 총 3개의 지침(안)이 발표되었으며, 유럽의회와 EU 28개 회원국 이사회에서 협상 중임
 - '19년 3월 통합된 최종안 제시 예정, 이후 영국 내 도입·시행까지 약 2~3년이 더 소요 될 것으로 전망

■ EU 단일화 지침 주요 경과

- Commission's proposal(2016.9.)
 - 유럽연합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가 디지털 단일 시장 내 저작권에 관한 유럽의회와 이사회 지침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Copyright in the Digital Single Market, COM(2016) 593) 및 영향평가서 발표
- Council text 통과(2018.6.)
 - EU 28개 회원국의 이사회(Council) 제안서
- European Parliament text 통과(2018.9.)
 - 유럽의회(European Parliament)에서 제시한 제안서
- Council과 Parliament 간 협상 중(현재)
- 최종 통합안 발표 예정(2019.3)

② 영국 지식재산범죄전담부(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1. 개 요

- 일 시 : 2018. 11. 19.(월) 15:00 ~ 17:00
- 회의장소 : 지식재산범죄전담부 회의실
- 참석자 : 총 5명
 - Nick Court(Detective Inspector)
 - Kevin Ives(DS, Fraud Squad)
 - (보호원)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저작권 관련 범죄 통계 및 행태 변화 조사

- ◆ 기관명 : Police Intellectual Property Crime Unit, City of London Police
- 기관개요
 - 2013년 IPO의 지원을 받아 설립된 런던경찰의 지식재산권 범죄 전담반으로서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범죄를 조사하기 위해 설립됨
- 주요 역할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함
(보호) 광고업계와 협력하여 불법 콘텐츠를 제공하는 웹사이트 방지 및 차단
(단속) 권리자의 신고를 기반으로 웹사이트에 제공되는 광고 차단
- 주소: (London) Economic Crime Department Guildhall Yard East London EC2V 5AE
- 사이트: <https://www.cityoflondon.police.uk/advice-and-support/fraud-and-economic-crime/8211;crime/pipcu>



<기념사진>

2. 주요내용

-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수사·단속과 함께 예방활동 수행
 - 타 경찰청 부서와 달리 PIPCU는 지식재산(IP)에만 관련되어 있는 부서로서 저작권 및 상표권과 관련한 업무를 주로 수행
 - 2013년에 창설되었으며, 총 21명의 직원(staff) 이외에 영화, TV,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7명의 인원이 자발적(무료) 참여
 - 5년간 100건 이상의 인터넷 범죄, 65,000개의 웹사이트, IP 침해 관련 co.uk 도메인을 조사
 - 조사를 통해 1,800여개의 웹사이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제재 활동 수행
 - 이밖에도, 합법 비즈니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권고 등 침해 예방 활동 수행

* '18년 불법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를 적발하였으나 운영자가 18세로 어리고, 비영리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처벌 가능성을 경고, 이후 해당 사이트가 바로 폐쇄됨

-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저작권 침해범죄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한 활동 수행
 - 언론사와 연계하여 미디어(TV, 신문), SNS(트위터 등)를 활용한 저작권 보호 홍보 추진
 - *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확산, PIPCU 활동 등 홍보
 - 경각심 고취를 위해 영국 전역이 아닌 한 지역에 집중하여 사전 통지 후 저작권 침해 조사를 추진
- PIPCU의 저작권 보호 활동은 권리자들의 문제 제기(증거자료 제출 등) 후 조사에 착수되며, PIPCU가 먼저 침해 사건을 인지하더라도 해당 권리자의 동의 하에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
- Operation Creative 운영을 통한 사이트 폐쇄 및 광고 차단 추진
 - 2013년 PIPCU 창설 이후부터 진행되었으며, 음악 산업 관련자, 기술 전문가 등 총 4명의 인원이 투입되어 진행
 -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 시 절차에 따라 침해사이트 폐쇄 유도

- ① 웹사이트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사이트 운영자에게 연락하여 사이트를 폐쇄하도록 권고 조치
- ② 폐쇄하지 않을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직접 폐쇄할 수 있는지 조사 착수
- ③ 만약, 사이트를 없앨 수 없다면 침해사이트 리스트에 올려서 누가 침해 사이트의 운영자인지, 배후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

-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67~70%가 음악과 영화 관련 사이트이며, 이 중 50% 가량이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되고 있음
- 현재 2,200개의 IP 침해 사이트에 대한 리스트를 관리 중이며, 브리티시 에어라인, 광고 네트워크사 등 영국의 250개 회사들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침해 사이트에 광고하지 않기로 협의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저작권 침해 수사에 있어서 PIPCU 측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EU 전역으로의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음
 - 저작권 침해자 단속을 위한 유럽 내 협력이 잘 이루어지고 있음
 - 영국은 유럽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면서 범죄자를 찾아 낼 것이며, EU에서 탈퇴하더라도 협조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공표함
 - 또한, 영국은 지식재산의 보호와 관련하여 현재 미국과 협력하고 있으며, 어느 국가와도 협력할 의향이 있다고 함
 - * City of London Police는 모든 국가의 컨택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힘
 - 한국에 대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가 영국에 도메인이나 서버를 두고 있다면 PIPCU가 단속에 협력하기로 함
 - 영국뿐만 아니라 EU 내 국가들에 대해서도 PIPCU와의 연계 하에 협력이 가능하므로, 양 기관의 지속적 교류를 통한 관계 형성 필요
- 한국도 장기적 관점에서 광고주, 권리자는 물론 해외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강화 노력이 요구되고 있음
 - 영국은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광고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음(Operation Creative)
 - 영국의 Operation Creative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브렉시트(Brexit)가 진행되더라도 이와 상관없이, 영국의 사례를 EU 버전으로 확대하여 실행하기 위한 과정이 진행 중임

- PIPCU는 광고 차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 불법사이트에 광고하는 행위가 돈세탁 범죄와 연관될 수 있다고 직접 방문하여 경고함으로써 광고주 등의 참여를 최대한 유도
- PIPCU는 광고 차단으로 인한 빈 광고란을 도박이나 포르노 사이트 등의 불법성 광고가 대체하더라도 이는 해당 웹사이트의 수준을 낮게 보이게 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그 자체로 성과라고 판단하고 있음
- 해외에 서버를 두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도메인 차단, 지불(payment) 차단 등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다각적 전략 추진이 요구됨
- PIPCU는 도메인 레지스트리, 호스트 ISP, 재무 정보(financial information)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하고 있음
- 특히, 지식재산 침해 사이트에 대한 지불 중단(payment disruption)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카드 회사 등과 연계하여 불법복제물 구매에 대해 돈을 지불하지 못하도록 노력 중임
 - * 광고 수익과 관련한 계좌 정보를 파악하여 운영자 체포 및 웹사이트 차단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활용
- 한국도 저작권 침해 사이트를 제재하기 위한 간접적 전략들을 보다 다각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③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1. 개 요

- 일 시 : 2018. 11. 20.(화) 11:00 ~ 13:30
- 회의장소 : 국제음반산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 Rosie Pinnock(Intelligence & Investigations Supervisor)
 - Partrik Charnley(Director of Legal Policy and Licensing)
 - David Price(Director of Insight and Analysis)
 - Catherine Lloyd(Senior Legal Adviser)
 - (보호원)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국제 음반 산업 관련 동향·성과 및 'Fixing the value gap' 캠페인 활동 등 조사

◆ 기관명 : International Federation of the Phonographic Industry

○ 기관개요

- 1933년 설립되어 전 세계 57개국과 연계되어 있는 단체로서 전 세계 음반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단체임

○ 주요 역할

- 음악 저작권을 보호하며 음악의 가치를 알리고 통계 및 뉴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수행

(법률) 음악 시장 보호와 불법복제물을 막기 위해 효과적인 법적 보호와 글로벌 소송 전략을 준비함

(교육) 전 세계 음악 업계의 판매 통계 및 소비 패턴 분석

○ 주소: (London) IFPI Secretariat, 7 Air Street, London, W1B 5AD

○ 사이트: <http://ifpi.org/>



<기념사진>

2. 주요내용

- 음반산업의 국제무역수익(Global trade revenues)은 2017년 기준 약 172억 달러(\$17.27bn)이며, 전년대비 8.1% 성장함, 이는 지난 15년간의 지속적인 감소 이후 3년 연속 성장한 수치임
- 구체적으로는 스트리밍 수익의 증대로 인한 것으로, 서비스 유형은 크게 구독형(Subscription audio streaming)과 광고기반(Ad-supported audio streaming, & video streaming)으로 나뉨

- 디지털 상 음악산업 확장을 위해 '가치차이 해소'가 급선무이며, 다양한 활동들의 결과로 내용이 'EU 단일화 지침'에 반영됨
 - IFPI 조사에 따르면, 음악을 듣는 사람들의 52%가 UUC(user upload contents) 사업자인 유튜브를 이용
 - 이들의 평균 사용료는 1년에 \$1 미만에 비해 스포티파이 이용자의 평균 사용료는 1년에 \$20임
 - 이처럼 가치차이가 발생하게 된 주 이유는 UUC서비스에 대한 법적 명확성 결여로, 사업자는 'safe harbours' 조항을 근거로 'notice and takedown'으로 자신의 불법복제물 유통 책임을 다했다고 주장
 - * 'safe harbours'란 미국DMCA 제512조로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일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책임을 면책해줌
 - UUC서비스사업자들의 면책 특혜로 인한 사업 확장으로 권리자들은 그들과 '불리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게 됨
 - 사업자들이 제시하는 조건에 동의하거나, 음악을 지속적으로 삭제 요청하거나, 소송을 해야함
 - 'notice and takedown' 조치 후 동일 콘텐츠가 불법으로 계속 업로드 되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있음
- IFPI는 'EU 단일화 지침'을 통해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함과 함께 새로운 유형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여하고자 함
 - 'safe harbours' 조항의 도입 취지는 인터넷이 기능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기술, 자동 및 수동 인프라 중간 매개체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것임
 - 이것은 기존 음악산업의 규칙을 어기고, 시장을 왜곡하는 회사에 무임승차권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
- IFPI는 '가치차이'에 대한 공감대를 국제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Value Gap에 대한 국제적 목표

권리자들이 그들의 권리에 대한 사용조건을 협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임

- 1) UUC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책임(primary or secondary) 기반 확보
- 2) 'safe harbours' 조항의 호스팅 범위를 기술, 자동 및 수동 서비스로 (technical, automatic and passive services) 제한
- 3) 'safe harbours' 조항 적용 조건으로 'stay down' 소개

- 음악 저작권 침해(piracy)에 있어 또 다른 문제는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임, 매달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만개의 음악이 스트림 리핑(Stream ripping)에 의해 불법 다운로드됨
- IFPI는 유명한 ripping 사이트에 대해 조사 중이며, 국제적 협력 및 직접 사이트를 폐쇄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중임
 - '17년 세계적으로 가장 큰 ripping 사이트인 'Youtube-mp3'를 폐쇄했으며, 덴마크에서는 법원 판결에 의해 '18년 7월 'Convert2mp3'를 폐쇄함(shut down)
 - 도메인명에 'youtube'와 같은 상표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상표권자와 협력하였으며, ripping서비스제공자에게 메일을 보내 불법임을 경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함
- 전 세계적으로는 2,600개의 불법사이트 URL이 접속차단되었고, 적어도 32개 나라에서 접속차단이 효과가 있었음
 - 호주에서 '18년 2월 접속차단에 대한 효과를 조사한 결과 불법사이트의 53.4%인 374개의 사이트가 차단됐으며, 그중 상위 50위에 해당하는 사이트가 35.1% 감소, 침해사이트 이용도 2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조사기관 Incopro)
- 유럽의 GDPR(개인정보보호규정) 도입 이후 ISP가 침해자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지불중개인(Payment)', '도메인, 호스트 회사', '광고주' 등의 협력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한 레터를 발송할 예정임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디지털 환경에서의 신 서비스 등장으로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의 해결을 위해 세계 각국에서도 OSP의 저작권 면책조항에 대한 재검토·연구가 진행 중임
 - 미국 저작권청은 DMCA의 'safe harbours' 조항이 잘 활용되고 있지 못함을 알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시작함
 - * 'Studying the impact and effectiveness of US safe harbours'
 - 호주는 'safe harbours' 조항을 넓히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여 법안을 채택하지 않음
 - 캐나다 정부는 중개자(Provider)를 압력해서라도 관리자가 얻어야 할 정당한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함
 - 유럽 국가 중 오스트리아는 법원에서 유튜브 서비스가 'safe harbours'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으며, 이탈리아는 유튜브가 'stay down' 할 것을 권고함
- '가치차이'의 해소가 디지털 산업에 있어 저작권자들의 정당한 권리 배분을 위한 중개자(Provider)들의 법적 적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우리 저작권법 102조(OSP의 책임제한) 및 'notice and takedown' 제도 등이 미국의 'safe harbours' 조항을 기반으로 설계됨
- 현재 유튜브는 자체적인 필터링 기술인 '콘텐츠ID'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체적인 기준에 의해 실행할 뿐 관리자·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음
 - 관리자들은 유튜브에서 자신의 저작물이 삭제되는 것이 아닌 라이선스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함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고민 필요

④ 국회 및 인터넷 컨퍼런스 2018(Parliament and Internet Conference)

1. 개요

- 일시 : 2018. 11. 20.(화) 15:00 ~ 16:25
- 장소 : Attlee Suite, Portcullis House in the House of Commons
- 참석자 : 총 3명
 - (보호원)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영국의 AI 정책·전략 방향 조사

◆ 소개 : 정부, 의회, 학계 및 업계의 주요 인사들을 모아 인터넷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정책 이슈를 논의하고 토론하기 위한 Conference

- 주제 : Confidence & Trust
- 주최 :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 UK)
- 주요연사 :
 - 좌장: Darren Jones MP(하원의원)
 - Louise Pakseresht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국(DCMS)
 - Stephen Browning, Interim Challenge Director(Next Generation Services, Innovate UK)
 - Ben Taylor, CEO(Rainbird)
 - Sachin Dev Duggal, chief(Engineer.ai)
- 참석 프로그램 일정

15:00-16:15	Panel Session 3: AI: Making the most of new technology
16:15-16:25	Closing Remarks: Nigel Huddleston MP



<컨퍼런스 사진>

2. 주요내용

- 토론주제는 'Making the most of the AI Opportunity'로 영국이 미래 AI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인프라, 정책 방향, 인공지능이 사회에 미치게 될 영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패널 토론 진행
 - 패널은 영국문화미디어스포츠국, AI시스템사 CEO, AI엔지니어 및 '18년 1월 설립된 미래연구위원회(research councils)로 구성됨
- AI연구에 있어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신기술이 삶 속에서 인간을 더 잘 도울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함
 - 인공지능이 인간이 갖고 있는 환경적(나이, 출신환경 등) 약점을 딛고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해야 함
 - 기존에는 software 전문가들만 IT분야에서 일할 수 있었으나,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비전공자도 이런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게 됨
 - 인공지능은 사람들의 미래를 좀 더 다양하게 선택·설계 할 수 있도록 해줌
- 인공지능에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불확실성 또는 50~100년 후의 먼 미래를 걱정함에 따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AI 활용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우는 것을 피력함
- AI 데이터 수집·활용에 있어 개개인의 관용 편차가 큼에 따라 납득 가능한 수준에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함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영국은 인공지능 도입에 따른 사회 전반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와 함께 부작용에 대한 대응 논의를 시작한 단계로 보이며, 산업적·제도적 관점보다는 사회·윤리적 관점의 논의부터 시작하고 있음
- 인공지능의 기술적 활용이 인간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두어 인간적 한계, 환경적 불평등 부분에서의 발전이 있을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표출됨

⑤ 영국음악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1. 개 요

- 일 시 : 2018. 11. 21.(수) 10:00 ~ 12:00
- 회의장소 : 영국음악산업협회 회의실
- 참석자 총 : 4명
 - Kiaron Whitehead(General Counsel)
 - (보호원)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저작권 보호 캠페인 활성화 방안 및 영국 음악 산업 동향,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 조사

◆ 기관명 : British Phonographic Industry

○ 기관개요

- 음반사를 회원으로 구성한 단체로서 1973년 음반산업에 대해 정부와 교류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여 설립됨

○ 주요 역할

- 음반산업과 관련하여 정부와의 통로 역할 및 정책 결정과 시장 침해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단속) 불법복제물에 대한 오프라인 및 온라인 단속

(교류) 음반제작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부 및 국회와의 교류, 시장 요율관련 협조

(교육) 음반 판매 등 산업관련 통계 및 홍보활동

※ BPI는 영국의 음악 산업을 담당, IFPI는 국제적 음악 산업을 담당

○ 주소: (London) Riverside Building, County Hall, Westminster Bridge Road, London, SE1 7JA

○ 사이트: <https://www.bpi.co.uk/>



<기념사진>

2. 주요내용

- BPI와 영국의 창조산업계(creative industry)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4가지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고객의 수요(needs)와 일치되는 합법적 서비스 구축
 -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법적 집행 강화
 - 'Get It Right' 캠페인과 같은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 수행
 - 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와의 협력 강화
 - 이를 위해 BPI는 저작권 보호와 관련한 다양한 주체들과 협력하고 있으며, 특히 정부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식재산범죄전담부(PIPCU)에 매주 2회 출근하는 직원이 있으며, 해당 직원은 BPI를 포함한 권리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 서치 엔진, 온라인 광고 업체, 온라인 플랫폼(아마존 등), 소셜 미디어 등과 저작권 보호를 위한 협의체 운영
 - 특히, 권리자·정부와 협력하여 구글이 저작권 보호 활동에 개입될 수 있도록 원탁회의(Search roundtable) 협상 추진
- ※ BPI는 구글과의 대화를 통해 저작권 보호 문제에 있어 구글의 역할을 이끌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을 강력히 촉구
- 한편, BPI를 포함한 영국의 권리자 단체들은 ISP와 협력하여 **저작권 보호 인식 제고 캠페인(Get It Right from a Genuine Site campaign)**을 운영하고 있음(※<https://www.getitrightfromagenuinesite.org/>)
 - 이 캠페인은 16세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법적인 내용을 교육하고, 창의적인 콘텐츠와 저작권의 가치를 홍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이를 위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캠페인을 펼치고 있으며, P2P 네트워크를 통해 이용자에게 교육성 메일을 발송하고 있음
 - 권리자들이 P2P 네트워크를 모니터링 하다가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것을 발견 시 ISP를 통해 해당 IP의 인터넷 가입자에게 교육용 전자 메일을 발송하며,

- 교육 이메일은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파일의 세부 정보와 공유 날짜 정보를 포함하고 있음
- 또한 합법적으로 콘텐츠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링크를 제공함으로써 합법 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음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영국은 권리자들이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저작권 보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밀접하게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음
 - ‘Get It Right from a Genuine Site’ 캠페인의 경우 권리자의 주도 하에 ISP를 포함한 유명인, 일반 이용자 등 사회 전반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으며,
 - ISP를 통해 발송되는 침해 경고 메일이 침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이에, 보호원도 정부(국회, 문체부 등) 뿐만 아니라 저작권 단체와의 공조를 통해 ISP, 콘텐츠 플랫폼, 광고업계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어 자발적이고 효율적인 저작권 보호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영국의 콘텐츠 업계는 고객의 수요(needs)와 일치되는 합법적 서비스 구축을 주요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보호원의 ‘저작권 OK’와 유사한 ‘Genuine site’를 이용자에게 소개하고 있음
 - 사이트 수 등을 감안했을 때 ‘저작권OK’가 영국의 ‘Genuine site’보다 활성화되어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 영국 사례를 참고하여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가 우려되는 대상, 사이트 등을 타깃으로 하거나, 타 캠페인과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 전략을 추진할 경우 보다 효과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⑥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 UK)

1. 개 요

- 일 시 : 2018. 11. 21.(수) 14:00 ~ 16:00
- 회의장소 : 영국인터넷서비스제공자협회(ISPA UK) 회의실
- 참석자 : 총 5명
 - Andrew Kernahan(Head of Public Affairs)
 - Nancy Hine(Policy officer)
 - (보호원) 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영국의 불법복제물 유통사이트 관련 정책(광고차단 협조 등) 등 자율규제 관련 활동조사

◆ 기관명 : Internet Services Providers' Association UK

○ 기관개요

- 1995년 경쟁, 혁신, 자기규제를 통한 인터넷 산업 발전과 더 나은 온라인 환경 조성을 위해 설립되었으며, UK는 영국 회사, Euro는 유럽 연합으로 구성

○ 주요 역할

- 조사·연구를 통해 디지털부, 문화청, Ofcom과 같은 정부기관에 ISP업계를 대표하여 의견 전달 및 업계 전문지식 제공
- Euro ISPA와 함께 EU 인터넷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정치적 모니터링 및 입장 등 표명

○ 주소: (London) ISPA, 69 Wilson Street, London, EC2A 2BB

○ 사이트: <http://www.ispa.org.uk/>



<기념사진>

2. 주요내용

- ISPA UK의 회원사는 총 150여개이며, 이들 중 대표적인 회사인 BT, Virgin Mida, SKY, TalkTalk가 90~95%의 비중을 차지함
 - 대표 4개사는 인터넷(broadband), 전화, TV 서비스를 제공하나 구글과 같은 인터넷사업자나 중·소기업도 포함함
 - 인터넷 기반 이슈 중 저작권 이슈는 가짜뉴스, 망안정성 등에 비해 작은 이슈이나, 인터넷 규제와 관련하여 이슈가 되고 있음
- ISPA는 '자발적 저작권 경고 프로그램(voluntary copyright alert programme)'을 운영, 침해사이트를 사용하는 유저에게 레터를 발송하여 안내함

※ 'Get It Right from a Genuine Site campaign' 의 내용과 같음, 권리자들의 모니터링을 통해 침해사이트 리스트에 등록된 사이트를 접속하는 유저들에게 교육 목적의 레터 발송

- 2010년 디지털 경제법에서는 삼진아웃(3strike-out)제도를 도입하여 침해경고를 3번 받으면 제재조치를 하였으나, 정치적 문제로 없어짐
- 비슷하지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집행이나 위협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을 전환함
- 영국에서는 대부분의 부모들이 PC에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 (Parent Control Filter)을 설치하는데, 대부분의 유해사이트에 저작권 침해사이트가 포함되며, 대부분 무료로 제공함
- 또 다른 자발적 규제로 아동학대콘텐츠를 제거하기 위해 ISP에서 '인터넷 감시 기구(IWF, Internet Watch Foundation)를 설립, 2000년 중반 이후부터는 해외사이트 접속차단까지 진행함
 - 이와 비슷하게 경찰에서 테러관련 사이트에 접속하는 이용자들에게 교육 목적 레터를 보내는 'Medicalization' 자율규제가 있음
- 구글 등 포털사이트에서 저작권 침해사이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검색제한 조치는 구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며, 이는 대부분의 UK ISP들이 책임 있는 기업이 되고자하기 때문임

- ISP는 검색 결과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하지 않으며 규제도 없으나 정치적 압력은 높아지고 있음
- EU 단일화 지침에 관해 인터넷 산업 분야 기업들은 대부분 비판적임, Brexit를 하더라도 저작권은 EU지침을 따라야하는데 ISP나 기관, 유저들에게 의도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고심 중임
 - 지침 11조 뉴스저작권의 경우, 유명한 블로거 등을 제재하면 표현의 자유를 잃게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internet Society Service Provider'에 대한 정의가 추상적이어서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할 대상이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음
 - 지침 13조의 사전필터링은 콘텐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자동화가 되어야하는데, 완벽한 기술의 존재 여부가 불투명하며 테스트되지 않았기 때문에 침해에 대해 효과적인지, 남용이 되진 않을지 등 여러 경우들을 고려해야함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디지털 사회에서 ISP의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영국에서와 같이 ISP의 사회적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자발적 자세가 중요해보임
 - 영국의 문화 및 사회적 분위기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정부·ISP·권리자 간 최선의 협력을 찾으려는 노력이 보였음
- 영국에서도 시민들의 불법사이트 접근을 막기 위해 저작권법만이 아닌 다른 관련법과 기술들을 통해 제재하고, 이용자들에게도 법적 제재보다는 레터를 발송함으로써 교육, 인식전환 효과를 유도
- 한국에서도 저작권 OK사이트와 같은 합법사이트 안내와 침해사이트 접속에 대한 경고성 메일 발송, 인식 전환 교육 및 컨설팅 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⑦ 지식재산권 동맹(Alli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1. 개요

- 일 시 : 2018. 11. 22.(목) 11:00 ~ 14:00
- 회의장소 : 지식재산권 동맹(Alliance for IP)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Andreea Sechely(Policy&Events Assistant)
 - Claire Anker(Digital Infringement Manager)
 - Isabelle Doran(Picture Library Manager)
 - (보호원)김좌현 팀장, 계태화 선임, 이용일 선임
- 목적 : 저작권 보호를 위한 권리자 협력 및 활동, 성과 등 조사

◆ 기관명 : Alliance for Intellectual Property

○ 기관개요

- 1998년 설립된 지식재산권 동맹은 IP권리보장을 위해 주요 권리자(사)들이 모여 설립한 단체이며, BSA, MPA와 영국 내 영화, 방송, 출판협회 등이 회원사임

○ 주요 역할

- 저작권을 포함한 IP 보호를 위한 국회와의 정기적인 회의 개최, 지식재산범죄전담부(PIPCU)와의 협업, 온라인 상 저작권 보호 및 홍보 등
- 영국 특허청과 상표권 도용과 같은 IP 피해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IP Crime Group'에 가입하여 활동 중

○ 주소: (London) Riverside Building, County Hall, Westminster Bridge Road, London, SE1 7JA

○ 사이트: <https://www.allianceforip.co.uk/>



<기념사진>

2. 주요내용

○ Alliance for IP(이하 Alliance)의 역할 및 입법 활동

- Alliance는 기업, 창작자를 대표하는 21개 기관으로 구성된 협회로서, 시청각, 브랜드, 비즈니스 SW, 장난감, 디자인, 게임, 이미지, 음악, 출판, 소매, 스포츠, 시각 예술 분야를 대표함



- 영국에서 지식재산권이 가치 있게 평가되고 권리가 적절히 보장 될 수 있도록 입법 활동 등에 기여

* Alliance는 2017년 영국의 디지털 경제법 관련 The Copyright, Designs and Patents Act(CDPA)가 개정되는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국의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형량이 10년으로 증가함

(문)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최대 형량이 2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서 발생한 효과는?

(답) 디지털 경제법의 일부 섹션 개정을 통한 온라인 처벌 강화는 불법 콘텐츠 이용자(최종 사용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저작권을 침해하는 사이트(또는 서비스) 운영자를 제재하기 위한 것임. 법 개정으로 판결에 있어서 더욱 넓은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형량 강화에 따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측면이 있음

- 현재 Alliance는 DSM(Digital Single Market)과 관련한 입법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를 구체적 목표로 두고 있음

1. 저작권 및 상표권에 대한 온라인상의 실효적 보호
2. 등록되지 않은 디자인에 대한 보호
3. 밸류 갭(value gap) 관련 온라인 플랫폼과의 협력
4. 예술가의 추급권(Artist Resale Right)의 보장

- Alliance는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직접적인 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으나, 입법과 정책에 있어 효과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 IP Crime Group
- PIPCU 파트너십 워킹 그룹
- National Markets Group(마켓 그룹)
- Search roundtable(검색 엔진 라운드테이블)
- Online marketplaces roundtable(온라인 마켓 라운드테이블)

- 지식재산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Alliance는 ‘Moments Worth Paying For’를 포함한 인식 제고 캠페인을 수행하고, 공공과 민간 부문의 이슈들을 반영하기 위한 저작권 교육 워킹 그룹(Copyright Education Working Group)의 멤버로 참여하고 있음

※ 회의 참석기관 소개내용(Alliance for IP 회원사)

- The Publishers Association
- 잡지, 뉴스 등의 타 분야를 제외한 서적 관련 활동만 수행
 - 전자책 관련해서는 2008년부터 이슈가 되어 왔으며 최근 침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영국의 경우 오프라인 침해가 거의 사라졌으나, 국제시장에서는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음
 - 불법복제 서적 파일의 경우 전공(academic) 서적은 스캔파일 형태로 유통되는 경우가 많으며, 보통은 크랙(crack) 파일 형태가 일반적임
 - 디지털 경제법이 발표되면서 ‘공공 대여권’이 강화됨
 - * e북을 온라인 도서관에서 빌리면 일정 비율로 작가에게 수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콘텐츠 접근성을 높이되, 권리자는 공공도서관이나 정부로부터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
 - 협회는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집행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출판 업계를 대표해서 업계 의견을 공공에 전달하는 역할을 주로 수행

■ British Association of Picture Libraries and Agencies

- 게티 이미지 등 125개 이미지 라이선싱 업체를 대표하고 있으며, British Library Council의 멤버
- 영국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이미지 마켓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미지에 대한 권리 보호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
 - * 유튜브,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사용되는 이미지에 대해 권리자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20억 개의 이미지가 매일 업로드 되고 있으나 이 중 85%는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미지임. 협회에서는 트위터에서 가장 많은 침해가 일어난다고 파악하고 있음
- 협회는 회원사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로비활동과 저작권 인식 제고 활동, 창조산업 분야의 다른 기관과 협력하는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3. 주요 결과 및 시사점

- 향후 보호원의 역할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뉴스, 스포츠, 교육, 사진, 캐릭터 업계 등 저작권 분야에서의 다양한 권리자들과 관계를 구축하고 업계 의견을 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1998년에 설립된 Alliance는 시청각, 음악, 비디오 게임, SW, 스포츠 산업, 브랜드 제품, 출판사, 작가, 소매업자, 디자이너 등과 관련한 협회 및 기관이 소속되어 있는 연합체임
 - 이들은 업계 의견을 반영한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경찰과 협력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인식 제고를 위한 공동의 홍보 활동을 펼침으로서 효과성을 높이고 있음
 - 업계의 목소리를 新사업에 접목할 경우 예산 확보가 더욱 용이해지고, 보다 효과성 높은 사업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한편,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 콘텐츠 플랫폼(유튜브 등), 검색 엔진 등 이해관계자들의 저작권 보호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간 협력을 통한 역할 부여가 중요하며 보호원이 이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수행해야 함
 - Alliance는 공동으로 추진할 경우 더 많은 이익(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영국은 협력하는 문화가 정착이 되어 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음

- 반면, 한국은 저작권 단체를 대표하는 연합회(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가 있으나 활발히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저작권, 디자인, 상표권 등 분야별로 활동이 각기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 Alliance는 협력을 위해서는 1. 권리자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하고, 2. (ISP, 검색 엔진 등에) 공통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고, 3. 정부, 국회의 관심거리에 맞추어 공통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협력점을 제안해야 한다고 제시함
- 저작권 분야 이해관계자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협력으로 인해 보호원의 역할이 오히려 확대될 수 있음
 - 권리자와 협력할 경우 기존의 음악, 영상, 출판, 게임, 만화, SW 외 장르로 보호 영역을 넓히고,
 - ISP와 협력할 경우 기존 웹하드 중심의 시정권고 위주에서, 토렌트를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를 공유하는 이용자에게 대한 경고로 업무를 확대할 수 있음
 - * 보호원 : 온라인 모니터링 → ISP 통지
 - ** ISP : 침해 가능성 안내(경고) 메일 발송
 - 이밖에 결재서비스, 검색 엔진, 광고주 등과 연계하여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간접적 제재 전략 추진도 가능하게 됨
 - 무엇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 제고에도 기여할 것임